

古典詩歌 教育論 序說*

〈賞春曲〉 교육을 예로 하여-

韓 昌 勳**

목 차

1. 서론
2. 古典詩歌 教育論에 대한 두 가지 시각
3. 고전 '작품'의 교육적 가치
4. 고전 작품을 '통한' 교육
5. 미완의 결론

1. 서론

고전문학 교육은 국어 교육, 그 가운데에서도 문학 교육이라는 범주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고전시가 교육은 고전소설 교육과 더불어 고전문학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여기에서 고전시가 교육이 현대시 교육과 더불어 시교육의 부분이라 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행해지는 관습상·현실상의 분류¹⁾를 고려하여, 문학 교육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교육론으로 분류한다.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98 신진연구인력 연구장려금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구과제(과제명 : 朝鮮 前期 江湖詩歌의 展開와 教育的 價値)의 일부분임을 밝힌다.

** 고려대 강사

1) 국어학·고전문학·현대문학의 틀은 '교과 내용학'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틀이었다. 필자는 문학을 고전과 현대로 나누는 그동안의 관습에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여기서는 전례를 따랐다. 한편, 최근에는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론을 중심으로 한 '교과 교육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한 현황 조사는 교육부 정책 연구과제, 『중등 교원양성 교육과정 연구』(교육부, 1996. 12. 30)에 자세히 나와 있다.

본 논문에서 논의의 전제로 이 점을 새삼스럽게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전시가 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넓게는 국어 교육에서부터 좁게는 문학 교육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더불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고전시가 교육은 국어 교육·문학 교육과 '상당한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그 나름의 '상대적 개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고전소설 교육과 고전시가 교육이 공유하는 이 '상대적 개별성'의 주요 요소로, 우리는 고전문학 교육의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문제에 주목한다.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이란 '고전문학 교육을 매마른 考證學과 지식주의의 압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러면서도 고전문학의 역사성이 학습자의 문학 이해와 성장에 의미 있는 요소로서 체험하도록 하는 것'²⁾이다. 고전시가 교육은 단순히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나 작품 어휘의 주석적 설명으로 끝나는 과정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문학 교육의 목적이 단순한 문학의 감상력과 상상력 증진을 뛰어 넘어서, '삶의 총체적 체험'과 '문학적 문화의 고양'을 추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³⁾ 고전시가 역시 문학이므로 교육에서 이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고전시가 교육을 학문적으로 논할 때 우선적으로 부딪치는 현실적 문제이며, 따라서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연구'와 '교육'의 거리를 적절히 이해하는 일이다. '연구'와 '교육'은 우선 그 목적이 다르다. 전자가 진리를 찾아 헤매는 탐구적 차원의 활동이라면, 후자는 사고와 행동의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실천적 차원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사고와 행동 변화 과정을 무시하고, "연구의 결과를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데 그치는 행동은 엄밀하게 말해서 전혀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⁴⁾ 고전시가 연구가 아니라 고전시가 교육을 문제삼는 입장에서 이런 시각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고전시가 교육론은 '교육 연구'라는 점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이는 고전시가 교육론이 '교육 현상'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2) 김홍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현대 비평과 이론』 3호(한신문화사, 1992)

3) 구인환 외, 『문학 교육론』(삼지원, 1988)

4) 김인환, 『한국문학이론의 연구』(을유문화사, 1986), p.352.

김인환, 『문학교육론』(평민서당, 1979) 참조.

여기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곧 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교육 연구'에 대한 인식 부재가 그동안 대학과 관련 학계에서 이루어진 '국어 교과 교육학'⁵⁾에 대한 상대적 소홀의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런 몇 가지 문제를 전제로 하면서, 고전시가 교육론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고전시가 교육론을 대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序說的 性格을 가지고 있는 본 논문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賞春曲〉을 대상으로 하여, 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모색해보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2. 古典詩歌 教育論에 대한 두 가지 시각

고전문학 교육의 목적은 '문화 전달과 창조'라는 요소가 지속적으로 추구되었으며, 이를 좀더 자세히 문장화하여 표현하면, '문학작품을 통하여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창조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미적 감수성을 기르며,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문화를 고양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한다'⁶⁾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고전시가 역시 고전문학 교육의 하위 범주로서 그 목적이 이와 유리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고전시가 교육론에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고전시가가 가지고 있는 문학성을 학습자들이 느끼고 공감하게 할

5) 여기에 대해서는 김대행, 『국어 교과학의 지평』(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에 실린 글들을 전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김대행은 이 책에서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을 더불어 제시한다. 필자는 특히 이 책에서 사용되는 '교과학'이란 용어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이 용어가 사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제6차 국어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교육과정에서 고전문학 교육의 목적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내려온 것으로 이해된다. 자세한 변천 내용은 정준섭,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을 참고할 수 있다.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이다.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이라거나 '창조적인 체험' 그리고 '미적 감수성'이라는 말들이 이런 교육 방향을 지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감상 교육으로 사실 전통적으로 문학 교육이 목적으로 취해온 입장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고전문학 교육의 경우 작품과 작품을 감상하는 학습자 사이에 존재하는 짧은 않은 역사적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대한 연구의 방향은 일차적으로 작품이 가지고 있는 범시대적인 문예적 가치를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고전시가 교육 연구자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각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밝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교육 연구'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이 부분의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채로, 교육을 구체화하는 방법론 및 그 실천의 문제로 바로 넘어간다면, 비유컨대 내용은 비고 껍질만 남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학 교수에 의한 문학 '연구'의 결과가 교사를 거쳐 무비판적으로 학습자에게 바로 '교육'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폐해는 이미 '지식 중심의 4차 교육과정' 기간에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 우리의 학습 현장 즉 교실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의 구조'보다 '학습자의 동기 유발'이라 하겠다.⁷⁾

다른 하나는 고전시가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를 실용적 문학 교육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현대인들이 왜 고전문학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하나의 구체적 답안을 낼 수 있다.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 한다거나 '문학적 문화를 고양' 한다는 말들이 이를 가리킨다. 이 입장은 아무래도 작품 자체의 의미보다는 문학의 수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정서적 태도 변화에 주목하게 된다. 이를 고전시가 교육의 효과에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문학 교육이 국어 교육에서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 문학

7) 개인적 체험을 덧붙인다. 필자는 4차 교육과정이 시행될 때, 고등학교에서 국어와 문학을 배웠다. 그 시절의 국어 교육 특히 '고전문학' 교과서와 참고서는 문법 중심의 지식 전달과 그것의 무비판적인 암기를 강요하였다. 고백하건데, 그런 상황에서 필자는 학력고사 문제풀이 이외의 학습동기를 전혀 가지지 못하였다. 거의 대다수의 급우들이 비슷한 체험을 했으며, 정서적으로 가장 문학적인 급우의 국어와 문학 성적이 하위권을 맴도는 '기현상'도 당시 흔한 풍속도의 하나였다.

이 삶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언어로 형상화되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문학의 교육은 필요한 것이며 중요한 것이다. 더구나 고전시가는 오랜 세월을 걸쳐 내려온 우리 민족의 혼과 같은 것이다. 우리 선인들의 사상과 삶의 지혜를 고전문학에서 구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학이 삶의 반영이라고 인정한다 해도 그 수준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 범위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또는 어떤 이론 체계의 적용이 바람직할까 하는 문제들이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나서게 된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유로 정당하고 중요한 가치의 추구가 포기되거나 희생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전시가 교육론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원론적인 차원의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작품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진전된 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작품 연구는 교육적 관심에서의 접근을 의미한다. 즉 어떤 고전시가 작품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교육의 대상이 된 작품의 교육적 가치는 어떤 것이며, 이에 학습자가 가장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상 작품의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얻을 수 있는 문화적 혹은 실용적 효과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들이 각 작품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조선 전기 歌辭 作品 〈賞春曲〉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보기로 한다.

3. 고전 ‘작품’의 교육적 가치 -〈賞春曲〉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賞春曲〉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작품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것이 歌辭 문학의 효시작인가의 문제”와 정극인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가”⁸⁾ 하는 것들이 주목

8) 김대행, “문학의 개념과 문학교육론”, 『국어교과학의 지평』(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p.333.

9) 안자산, 이병기, 정병욱, 최강현 등의 논의가 있다. 연구사적 검토는 최웅, “歌辭의 起源”, 『한국문학사의 쟁점』(집문당, 1986)을 참고할 것.

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와 작가의 실제 여부가, 과연 '연구'의 차원을 넘어 '교육'의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인가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교육의 내용이 문학사에 관한 것이라면, 이러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즉 주로 대학에서 행해지는 실증적이고 고증적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교육의 대상이 되는 내용과 거기에 따르는 과정과 평가 문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여 <賞春曲>을 왜,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심을 모으면, 논의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들이 왜 <賞春曲>이 중요하고 배울 가치가 있는지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교육 방법론은 얼마든지 다양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의 고전시가 교육에서 이 부분은 사실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주어진 학습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교육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관례가 되어 버렸다는 말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그리고 다소 원론적이라고 생각되는 대답은, 아마도 <賞春曲>이 훌륭한 예술 작품이며 따라서 작품 자체의 美意識을 학습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될 법하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뒷받침되는 작품론적 연구가 기반을 이루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고전문학계는 이런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만큼의 작품론적 성과를 그다지 풍부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¹⁰⁾

<賞春曲>은 구조적으로 잘 짜여 있고, 自然을 통한 작가의 情緒가 잘 표현되어 있는 문학적으로 뛰어난 歌辭 作品이다. 현실에서 벗어난 작가가 自然과의 合一을 통해 '安貧樂道'라는 심리적 평안 상태에 이르는 주제 의식, 그리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평화롭고 여유로운 美意識이 생동감 넘친 언어를 통해

10) 권영철, 강전섭, 최강현, 서원섭 등의 논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최강현, 『가사문학론』(새문사, 1986)의 관련 부분을 참고할 것.

11) 현재 <賞春曲>의 작품론으로 참고할 수 있는 논문은 박영주, “<賞春曲>의 작품구조와 자연관”, 『성대문학』 22집(성대 국문학과, 1992) : 박병완, “<賞春曲>의 분석적 연구”, 『한국고전시가작품론』(집문당, 1992) : 윤석산, “<賞春曲> 구조 연구”, 『고전문학연구』 13집(한국고전문학회, 1998) 등이 있다. 이들은 고전시가 연구에 있어 높은 연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문제에 적절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古典詩歌 教育論 序說

질서있게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평안하면서도 절제된 美意識은 울격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賞春曲〉은 처음과 마지막의 대칭적 구조, 시상의 점층적 전개, 기타 문장 길이의 적절한 조절로써 정서의 변화를 미묘하게 표현한 작품이다.¹²⁾ 이를 보더라도 〈賞春曲〉은 다른 작품에 비해 시상이 매우 안정되어 있고 절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生涯 엇더 혼고
넛 사람 風流 미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 男子 몸이 날만흔이 하건마는
山林에 못쳐 이셔 至樂을 모름 것가
數間 茅屋을 碧溪水 얹피 두고
松竹 鬱鬱裏에 風月主人 되어 서라

.....

功名도 놀 쇠우고 富貴도 놀 쇠우니
淸風 明月外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簞瓢 陋巷에 хот튼 혜음 아니 흐니
아모타 百年行樂이 이만흔돌 엇지 흐리.

〈賞春曲〉의 서사와 결사를 들었다. 작품은 서정적 주체가 자신의 情緒를 드러내면서 시작하고, 자신의 情緒를 재확인하면서 끝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작품 이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시적 자아의 情緒가 가지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여기서 시작된다. 고전시가 연구는 〈賞春曲〉에 나타난 시적 자아의 情緒가 '安貧樂道'라는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데서 일차적으로 연구를 마무리지을 수 있지만, 고전시가 교육 연구는 여기서 끝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情緒 교육의 문제는 작품과 학습자 사이에서 情緒 體驗이 共有되어야 비로소 그 소임을 끝낼 수 있다.¹³⁾

12) 최상은,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의 미의식』(성균관대 박사 논문, 1991), p.98.

13) 서정시 교육에 있어 작품과 학습자간의 詩의 情緒의 體驗과 共有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로 최지현, "문학정서체험 : 교육내용으로서의 본질과 가치", 『문학 교수·학습 방법론』(삼지원, 1998)과 김대행, "情緒의 본질과 구조", 『고려시가의 情緒』(개문사, 1985)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다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賞春曲〉의 情緒가 '安貧樂道'이며, 이것이 곧 작품의 주제가 된다는 교실 현장에서 설명은 얇은 교육이다. 그리고 이러한 얇은 곧 지식이며 아울러 일방적 가르침이 가능한 것으로서 지난 시기 교사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정서적 체험 없이도 학생들에 대해 우위를 지킬 수 있게 해주었던 교육의 내용이다. 그러나 정서는 객관적 실체라기보다는 심리적 작용이다. 그것은 생리적 변화에 기초를 둔 외부 세계의 체험이자 인지적 요소를 포함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다. 문학 교육에서의 정서 또한 그러하다. 다만 문학 교육의 경우 생리적 변화에 기인하지 않고, 실제적 상황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 않으며,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지닌다.¹⁴⁾

따라서 〈賞春曲〉의 情緒와 主題에 대한 교육은 단지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 끝날 수 없다. 문학 감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情緒 體驗의 가치는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얻게 되는 내면적 변화에 의지하는 것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작품이 어떤 범위 내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윤곽을 학습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 윤곽이 고전문학의 경우에는 현대 문학과 대비하여 크게 확장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을 우리는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지면, 학습자들은 나름의 개별적 감수성을 발휘하면서도 '安貧樂道'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문학 정서 체험에 이르게 되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현 시점에서 이런 교육 방식이 기존의 지식 전달적 교육을 벗어나면서도, 학습자의 무한한 범위의 감수성을 인정하는 수용미학 내지는 구성주의적 교육 철학의 문제점에도 빠지지 않는 제3의 길이 될 수 있으리라 여긴다.

결국 우리가 〈賞春曲〉을 통해 느낄 수 있는 '安貧樂道'라는 내면적 삶의 자세와 넉넉함, 그리고 그 道가 간직한 인문적 가치,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사람과 자연 사이에 이루어지는 생명의 교류 등의 정서 체험이 〈賞春曲〉 교육의 주제적 가치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다. 이제 문제는 작품에 내재된 이런 교육적 가치를 교사와 학습자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론의 문제인데, 이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상의 논의를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賞春曲〉 교육이 情緒나 主題

14) 최지현, 앞의 글, pp.124~125 참조.

古典詩歌 教育論 序說

의 측면의 교육만으로 그칠 수는 없다. 문학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표현 교육과 이해 교육이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고전 표현론도 고전시가 교육의 주요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고전시가 교육론에서 이 부분의 연구 상황은 황무지와 다름이 없다.¹⁵⁾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도라 오니
桃花杏花는 夕陽裏에 띄여 잇고 綠楊芳草는 細雨申에 프르노다
칼로 몰아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이 불볼마다 현스럽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오므로,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된다. 이때 시적 화자의 눈에 포착되는 사물이 '桃花杏花'와 '綠楊芳草'이다. 작가는 이를 '夕陽'과 '細雨'에 연결시켜 표현함으로써, '밝음과 어둠' 혹은 '흐릿함과 도드라짐'이라는 시적 대비를 통해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즉 꽃이 봄을 맞아 피어난다는 밝음의 이미지가 석양이라는 어둠의 이미지와 대비되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흐릿함 속에 녹색의 꽃이 피어나는 도드라짐의 색채 대비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표현에서의 대비는 단순한 '밝음과 어둠' 또는 '흐릿함과 도드라짐'의 대비가 아니라 나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造化神功'이란 표현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고전시가에 나타나는 대비적 표현의 중요성은 일찌기 주목되었으며,¹⁶⁾ 이와 같은 대비를 통해 나타나는 이미지의 표출이라든가, 또는 시적 표현의 묘미는 고전 표현론의 중요한 탐구 과제가 된다. 다음의 귀절에서 나타나는 색채 대비와 그 표현법을, 조선조의 뛰어난 이미지스트 시인인 윤선도의 시조에 나타난 표현법과 비교해 보라.

和風이 건듯 부러 綠水를 건너 오니

15) 그런 의미에서 김대행, "고전표현론을 위하여", "옛날의 글쓰기와 사과의 틀", "고전문학과 국어교육", 『국어교과학의 지평』(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의 논문들은 선구적 의의가 인정된다. 그러나 논의의 일반화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하기는 힘들므로, 이후의 논의에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6) 김대행, 『우리 시의 틀』(문학과비평사, 1989)

清香은 잔에 지고 落紅은 옷새 진다. <賞春曲 일부>

어와 저므러 간다 宴息이 만당토다
ㅍ는 눈 빠린 길 불근 곳 훑터던 더 흥치며 거러 가서
雪月이 西峯의 넘도록 松窓을 비겨 잇자.
<고산유고 66> [尹善道]=/고유/해일/해정/해주

‘落紅’이라는 어휘를 통해 저녁이라는 시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落照라는 붉은 색 이미지와 대비되는 ‘綠水’와 ‘清香’이라는 녹색의 이미지 사용이다. 이 대비되는 색채의 이미지는 서로를 자극하며, 우리에게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케 한다. 윤선도 시조의 시간적 배경도 저녁 무렵 落照가 비치는 때이다. 여기서는 흰 바탕의 길위에 붉은 꽃잎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는 광경으로 표현되었다. 하루가 저물어 가는 무렵 붉은 색과 흰색의 강렬한 색채의 구도에서 시적 화자의 고양된 興趣가 선명하게 視覺化되는 것이다.¹⁷⁾

고전 표현론은 인식론적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표현론이 지향하는 바는 그 원리적 차원의 성격을 뜻한다는 말이다. 고전시가에서 현대시에서 보여주는 다기한 표현 기법과 상응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문학적 성취가 뛰어난 고전시가가 보여주는 표현법은 시대를 뛰어넘어 살아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지하고 있다. 필자는 그 보편적인 가치에서 교육적 가치가 발견되기를 기대한다. 문학은 특별한 언어 체계가 아니다. 학습자들이 고전시가 교육을 받으므로써 고전 표현론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범시대적이고 보편적인 표현법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언어 구사나 일반문이나 문예 창작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4. 고전 작품을 ‘통한’ 교육 -〈賞春曲〉을 통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작품 〈賞春曲〉에 주목하여, 이의 교육 문제를 살펴 보았

17) 윤선도 시조에 나타나는 문학적 표현법의 양상과 그 성격은 필자가 “윤선도의 정치적 역정과 문학적 성취”, 백목어문학회 주최 제5회 학술대회(제주대학교 교수회관, 1998. 10. 17.)에서 대략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다.

古典詩歌 教育論 序說

다. 그러나 문학 작품의 이해는 단순한 작품의 구조적 혹은 심미적 이해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우리가 끊임없이 문학 작품을 짓고 감상하는, 더구나 지어진지 오래된 고전문학을 현재의 시점에서 감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의 까닭이 단지 작품 자체가 좋아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 불성실한 대답으로 치부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고전 작품을 '통한' 교육이란, 문학 작품의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문화적 혹은 실용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필자는 〈賞春曲〉의 경우, 주제에 대한 공감과 표현법 등의 문예미 교육과 함께 학습자들의 '생태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고 일깨울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¹⁸⁾ 이는 곧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위 '환경 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또 마땅히 고전시가 즉 〈賞春曲〉 교육의 경우도 그 방향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¹⁹⁾ 이런 인식은 앞서 제기했던 질문 즉 '왜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에도 일정한 몫의 대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嬌態 로다
物我一體 어니 興 이이 다를 소나

그동안의 〈賞春曲〉 연구에서 가장 주목되었던 부분이다. '天人合一'의 논리와 함께 '物我一體'의 사고는 특히 조선 전기 士大夫들의 詩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美意識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과 구별하여 자연을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신을 포함시킨 존재 전체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자연론적 화해론에 서서 윤리적 이념도 자연속에서 찾는 입장은, 보이지 않는 理는 보이는 氣로 자연스럽게 피어난다는 사고 방식과 일치하게 된다. 이른바 '格物'이라는 것은 보이는 氣에서 보이지 않는 理를 찾아나서는 과학적 탐구, 좀더 엄

18) 최근에 필자는 박혜숙, "시조의 생태미학", 『녹색평론』 42호(대구 : 녹색평론사, 1998, 9-10)를 대하고, 고전시가에서 생태적 사유와 미의식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외로운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단지 박혜숙의 글에는 고전시가의 생태적 사유를 강조한 면이 부각되며, 필자는 이를 교육의 차원에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는 점은 첨부해둘 필요가 있겠다.

19) 문학과 생태학의 관련에 대한 최근 논의 전개에 대해서는 김옥동, 『문학 생태학』(민음사, 1998) : 이남호, 『녹색을 위한 문학』(민음사, 1998)을 참고할 것.

밀히 말하면 '생태학적 각성'의 성격을 띤다. 자연히 여기서는 갈등보다 조화가 전면부에 부각된다.²⁰ 〈賞春曲〉의 시적 화자와 事物인 새가 같이 느끼는 興이 바로 이 '생태학적 각성'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微吟 緩步 ㅎ야 시냇ㄱ의 호자 안자
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淸流를 굽어 보니 떠오느니 桃花ㅣ 로다
武陵이 갖갑도다 저 락이 권거인고

이 귀절에서 나타나는 '武陵'에 대한 관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桃花'나 '武陵'에 대한 관심은 사실 그 연원이 도교에 있다. 그러나 理氣論으로 대별되는 新儒學의 통합적 사유가 구체적으로 도교의 우주론과 불교의 형이상학에 유학의 윤리학을 융합시킨 철학적 성과였음을 고려한다면, 士大夫의 詩歌에 도교적 사유가 나타남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작가가 그의 江湖 體驗을 詩化하는 과정에서 江湖에 대한 인식을 우주론적으로 확장하고, 나아가 이를 도교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 윤리적 차원보다 自然 자체와 그에 승-함으로써 느끼는 흥취를 더욱 중요시하는 작가의 태도 때문에 말미암으며, 이는 곧 心보다 物을 중시하는 사유 방식의 발현이다. 心보다 物을 앞세우는 도교적 발상 이는 곧 '생태학적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오늘날 자연 파괴의 주범은 바로 인간의 물질 향유욕의 무절제한 팽창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물질 향유욕의 무절제한 팽창은 거의 서양 문명의 확대 재생산의 결과다. 즉 환경의 황폐화 내지는 자연 파괴는 물질 향유욕의 무한 팽창을 체제화한 자본주의 체제 작동의 고도화·보편화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다가올 재난을 막는 길은 이 물욕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양의 문화는 일찌기 이런 자세를 취해 왔으며, 따라서 그 근거를 〈賞春曲〉을 비롯한 한국 고

20) 조선 유학의 理氣論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연구 업적이 있다. 필자는 이런 연구들 중에서 특히 한형조, 『주희에서 정약용으로 : 조선 유학의 철학적 패러다임 연구』(세계사, 1996)를 주목했다. 그가 정리하여 제시하는 理氣論의 틀 속에서, 필자는 〈賞春曲〉이 主氣論의 입장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시가에서 찾는 것도 무리한 일은 아니다.

고전시가의 주 창작 담당층인 士大夫들은 물욕을 줄이고 물질 향유를 절제있게 하고 삶의 무게 중심을 정신적 가치의 향유에 둔 삶의 자세, 곧 '安貧樂道'에 두었다. 고전시가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인 이 '安貧樂道'의 사상에는 단순히 개인 차원 욕망의 좌절에 대한 위안의 철학을 넘어서 자연 유한관에 기초한, 인류 공동체의 삶의 항구적 지속을 위한 일종의 문명적 전략이 깃들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고전시가의 '安貧樂道' 사상과 그것이 표상하는 동양의 인문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²¹⁾

〈賞春曲〉에서 '생태학적 사유'를 찾아내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시키는 문제는, 고전 '작품'의 교육이기 보다는, 고전 작품을 '통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賞春曲〉을 포함한 많은 고전시가 작품들은 사물을 보는 또다른 하나의 관점, 즉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고 내면적으로 깊이 결부시켜 파악하는 관점을 일깨워 준다. 新儒學의 士大夫들은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는 도교의 관심과는 구별되게, 자연에 친화하면서도 주체를 중요시 여기는 변증법적 사고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賞春曲〉을 포함한 많은 고전시가 작품들이 이를 증거한다.

이런 점들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생태학의 여러 관점, 그리고 그 변동 과정과 상당히 흡사하여 주목된다. 현재 서구의 환경 운동은 생태학적 논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쟁과 갈등의 핵심은 환경 개량주의의 인간 중심주의와 근본 생태학의 생물 중심주의, 그리고 이 양자를 극복하려는 사회 생태학 사이의 논쟁이다.²²⁾ 근본 생태학이 환경 개량주의를 비판하고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때 인간을 생물중으로만 파악하는 자연주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인간의 문화와 우주 자연을合一시키는 새롭고 창조적인 인간의 재규정이 필요한데 서구 사상사에는 이런 전통이 빈약하다. 이것을 극복하려는 사회 생태학의 노력은 전통의 결핍으로 힘겨운 느낌이 든다.

필자는 특히 사회 생태학의 동향²³⁾에 주목하는데, 그 전통의 결핍을 동양 사상,

21) 이동환, "좌담 : 문명의 전환과 국문학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10집(민족문화사연구회, 1997) pp.30~33, 참조.

22) 김지하, 『뜸』(술, 1985) p.15.

23) 사회 생태학의 대표자는 머레이 부친이다. 최근에 그의 작업이 주목의 대상이 되어 그의 주저 두 권이 번역되었다. 문순홍 역, 『사회 생태학의 철학』(술, 1997) : 박홍규 역, 『사회 생태주의란 무엇인가?』(민음사, 1998)

그 중에서도 조선조 新儒學 특히 主氣論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때 이들의 사상이 담겨 있는 고전시가의 교육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라는 관점에서 그 고전적 가치를 잃지 않고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시가 교육이 담지해야 할 '문화 전달과 창조' 기능이란, 이런 실천적 작업에의 관심과 적용을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5. 미완의 결론

본 논문의 시작에서 필자가 '序說'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듯이, 이 연구는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에 서있다.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문학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지는 아니 하였으나, 그 연구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기존 연구의 검토 과정에서 느껴지는 미미함의 상당한 원인이, 문학 교육론의 기본적인 틀 자체가 너무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교육'은 그것이 비록 학문적인 언급의 대상이 되더라도, 항상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교육론'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이다. 현재 시점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古典詩歌 教育論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고전시가 교육을 대하는 두 가지 가능한 시각을 제시하고, 〈賞春曲〉을 대상으로 구체적 적용을 시도해 보았다. 고전시가 교육론은, 고전 '작품'의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여기서 '교육적 가치'라는 문제가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의 시각에서 볼 때, 고전 작품을 '통한' 교육에도 관심이 두어져야 함을 구체적으로 보이고자 노력했다.

고전 '작품'의 교육이란 측면에서 볼 때, 〈賞春曲〉은 '安貧樂道'라는 내면적 삶의 자세와 넉넉함, 그리고 그 道가 간직한 인문적 가치,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사람과 자연 사이에 이루어지는 생명의 교류 등의 정서 체험이 내용적인 면에서 교육적 가치를 이룬다. 더불어 학습자들이 〈賞春曲〉 교육을 통해 고전 표현론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범시대적이고 보편적인 표현법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언어 구사나 일반문이나 문예 창작에 적

古典詩歌 教育論 序說

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형식적인 면에서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

고전 작품을 '통한' 교육이란, 문학 작품의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문화적 혹은 실용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賞春曲>의 경우, 학습자들의 '생태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고 일깨울 수 있다. 이는 곧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위 '환경 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어 교육의 한 특징은 실용적 성격에 있으며, 국어 교육 연구는 '응용 학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문학, 그 범주 내의 고전시가 교육의 연구 역시 이런 인식의 전환 아래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 경우 그 기저의 '기초 학문'으로서의 문학 그리고 고전시가 연구 또한 더욱 지속적이고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초와 응용간의 평화로운 공존'²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논의가 고전시가 교육론의 여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모색해보는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논리 전개나 논증 자료 제시에 있어 다소 무리하거나 미흡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관심 있는 동학들의 활기찬 질정을 기대한다.

24) 김은전, "시 교육의 성격과 목표", 『현대시 교육론』(시와시학사, 1996), p.12.